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19. 11. 11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 그 동안의 정책현황	1
1.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1
2.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3
3. 금융산업의 여신·투자관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
4.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은 Down, 소비자 보호는 Up! ...	6
5. 대내외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
6.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10
II . 향후 정책방향	11
<별첨> 주요정책 관련 사례	12

I. 그간의 정책추진 노력과 성과

1.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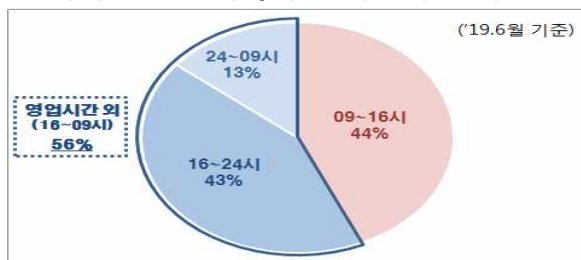
[그간 추진정책]

- ①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18.10월) 등 금융권 경쟁촉진
 - 전문화·특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규인가
- ②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18.12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

❶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거래는 편리해지고, 가격경쟁은 촉진되고 있습니다.

- 영업시간 외 계좌개설 비중 56%,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 등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
- 예금금리는 상승하고, 대출금리·수수료는 하락하는 등 정제된 은행산업에 가격경쟁을 촉진

<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시간대별 비율 >



<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경쟁 촉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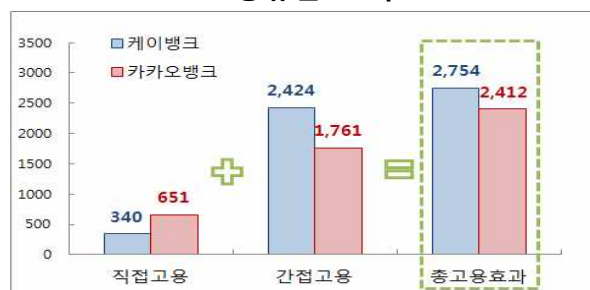


- 직접 고용 뿐만 아니라 R&D 투자 연관분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약 5천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



< 고용유발 효과 >



② 금융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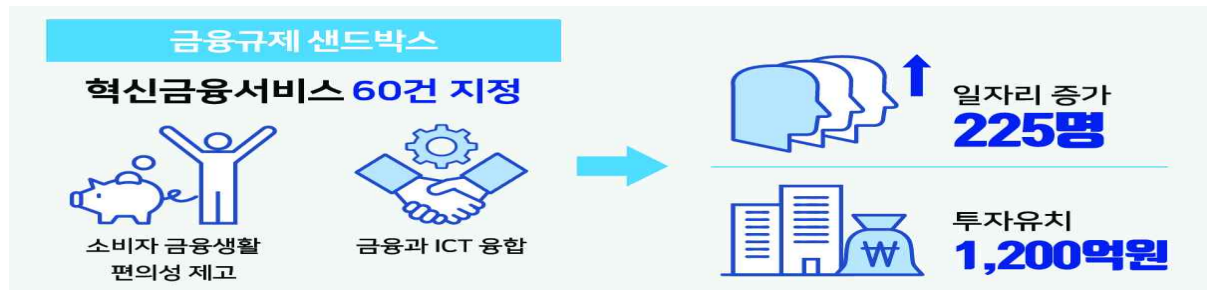
- 6년 만에 보험사를 신규허가(1개사, 온라인특화)하였으며, 10년간 신규인가가 없었던 부동산 신탁사도 신규인가(3개사)

③ 혁신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서비스로 실현됩니다.

- 금융규제 혁신지원법 시행('19.4월) 이후 현재까지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全 부처 혁신서비스의 약 4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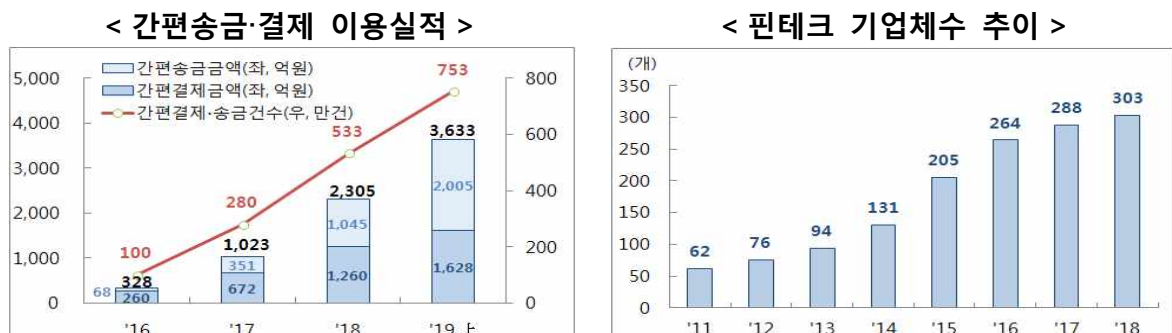
* 이 중 15건의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총 36건이 연내 출시될 예정

- 혁신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한편, 일자리 증가(약 225명) 투자유치(약 1,200억원), 해외진출 등 긍정적 연관효과도 발생



④ 한국의 핀테크 산업발전에 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 간편결제 이용액 급증, 핀테크 기업체수 증가 등 핀테크 활성화의 효과도 가시화



< Economist 誌 관련기사('19.5월) >

-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5년부터 **핀테크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들은 **재미있는 금융**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금융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주목이 필요하다**.

2.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정책]

① 혁신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코스닥 상장활성화

* 상장요건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4차산업 맞춤형 심사기준 마련 등

② 성장지원 펀드(3년, 8조원)를 조성하여 투자중심의 공급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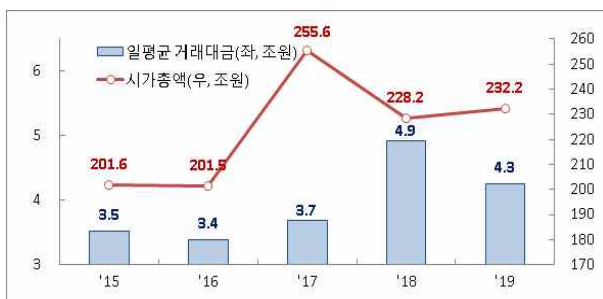
③ 클라우드 펀딩 관련 활용도 제고*

* 투자한도 확대(연간 500만원 → 1,000만원) 모집한도 확대(연간 7억원 → 15억원) 등

① 코스닥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기관·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코스닥 시가총액·일평균거래대금 추이 >



< 코스닥 기관·외국인 투자비중 추이 >



- 신규 상장뿐만 아니라 재무성과평가 없이 기술력과 사업모델의 미래성장성만으로 진입하는 특례상장 비중이 지속 확대

* 신규상장 : ('16년)70개사 ('17년)79개사 ('18년)81개사 ('19년[㉠])81개사
비재무요건 상장 : ('16년)10개사 ('17년)7개사 ('18년)22개사 ('19년[㉠])25개사

< 코스닥 상장·자금조달 추이 >



< 코스닥시장 비재무요건상장 기업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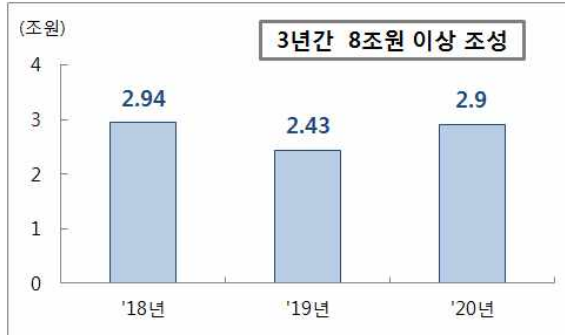
②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 민간자금을 매칭(68%)하여 성장지원펀드 조성 → 대규모 모험자본(3년간 8조원)을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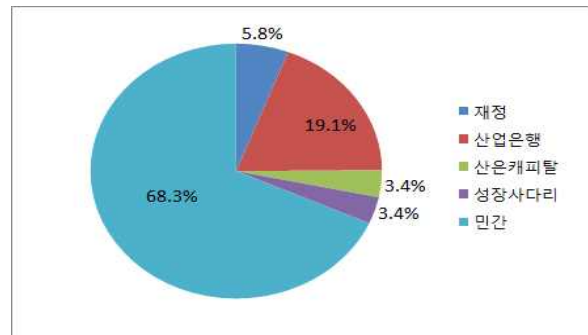
* '18년 펀드 2.94조원 조성 → '19.9월 현재 145건(총 9,259억원) 투자 집행

* '19년 펀드 2.43조원 조성 추진 → '19.9월 현재 2.1조원 조성

< 성장지원펀드 조성규모 >



< 성장지원펀드 결성비중 >



< 성장지원 펀드의 대규모 투자자금 공급사례 >

- A사 : 기술력을 보유한 화장품 업체, 기업가치 330억원 → 250억원 투자
- B사 :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업체, 기업가치 300억원 → 100억원 투자
- C사 : B2B 플랫폼 업체, 기업가치 450억원 → 98억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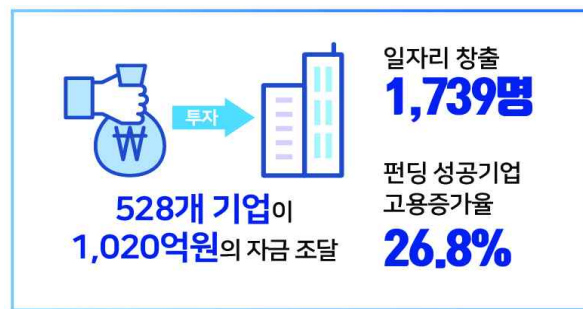
③ 크라우드펀딩,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성장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실적 >



< 크라우드펀딩 기대효과 >



<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

- A사 : 알고리즘 기반으로 펀드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15억원을 유치하여 공모형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고 금액을 기록
- B맥주 : 크라우드 펀딩 성공을 발판으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17.7.27일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상춘재 호프미팅'에서 공식 만찬주로 활용

3. 금융산업의 여신·투자관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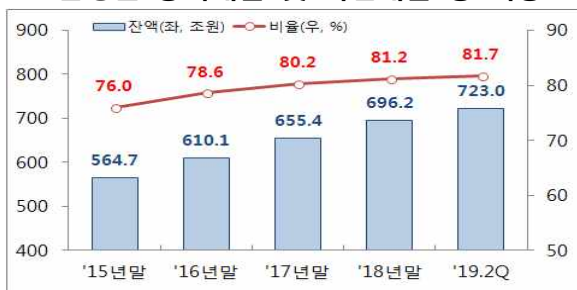
[그간 추진정책]

- ① 新 예대출 도입 등 가계·부동산 중심 대출관행 개선유도
- ② 증권사의 벤처기업 지원기능 강화
- ③ 동산금융 활성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① 은행, 증권사 등의 중소기업 대출·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700조원을 돌파, 비중도 증가추세
- 대형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액이 지속 확대('13말 0.07조원 → '19.3월말 1조원)

< 은행권 중기대출 및 기업대출 중 비중 >



< 대형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현황 >



② 동산금융 Yes!, 연대보증 No!, 금융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등 활용도가 제고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



< 동산담보대출 잔액 >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월~) 후 신·기보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없이 17.2조원 공급, 기존 연대보증 11.2조원 감축

4.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은 Down, 소비자 보호는 Up !

[그간 추진정책]

- ① 최고금리 인하 (27.9%→24%), 카드수수료율 부담 완화*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②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등 채무조정 활성화

*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설립 등

- ④ 소비자 만족을 위한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❶ 이자·수수료 인하로 가계·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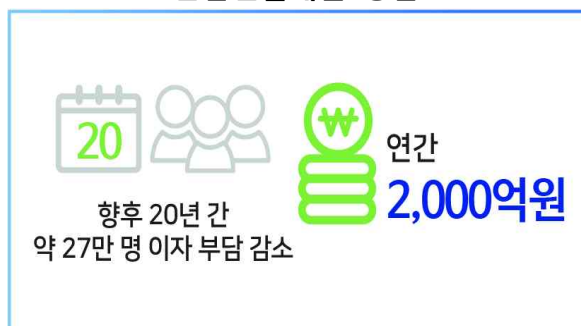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로 최대 293만명 차주의 이자 부담이 1.1조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

< 최고금리 인하 효과(추정)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약 27만명의 이자부담이 경감 (연간 2천억원, 1인당 75만원)
-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공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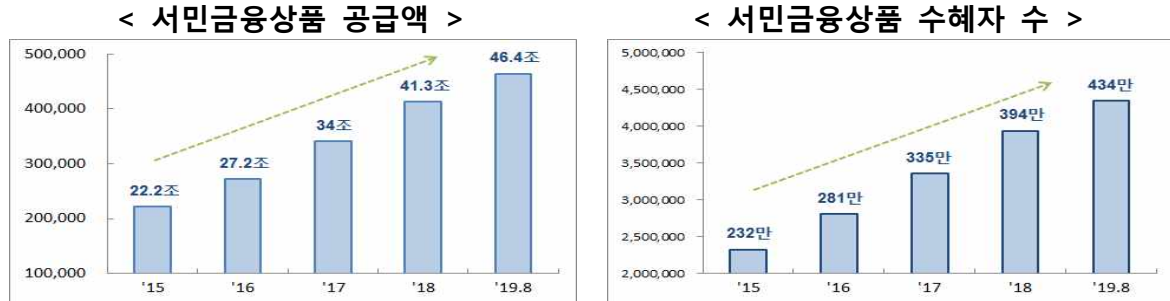


<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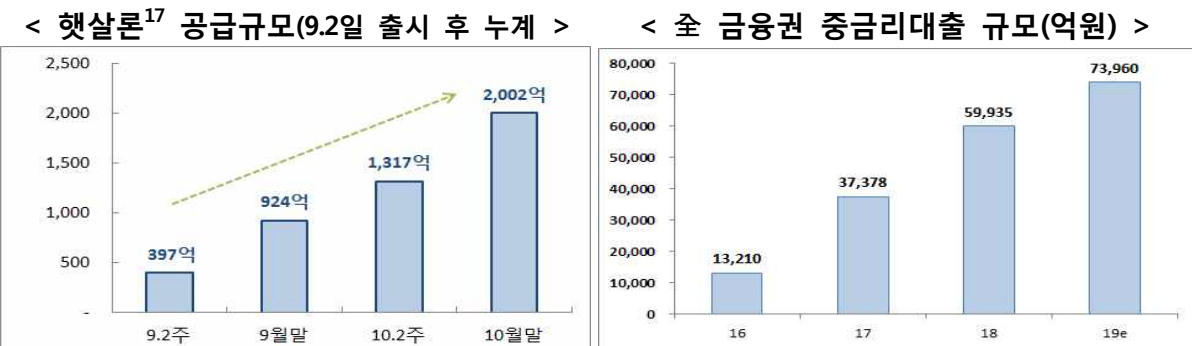


②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434.2만명, 공급액은 46.4조원('08년 이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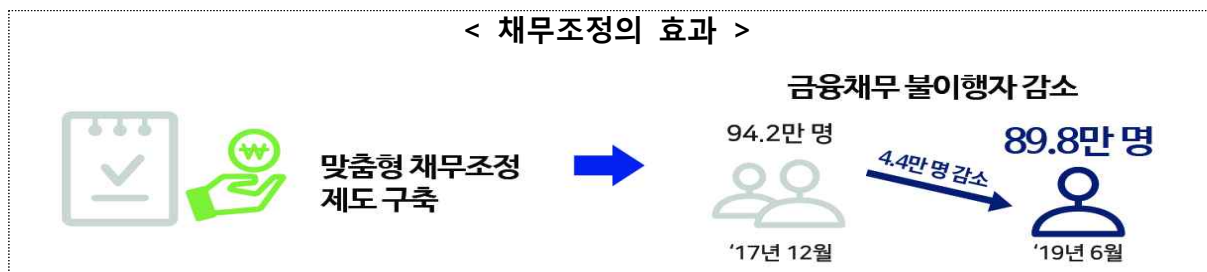


-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¹⁷ 출시, 두달 만에 연간 공급목표(2천억원)의 조기달성(4천억으로 목표 확대)
-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시장 저변 확대 → 소 금융권 중금리대출 규모가 확대('16년 1.3조원 → 19년 추정 7.4조원)



③ 연체채무자의 재기지원, 금융이 함께합니다.

-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감소



- 특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64.4만명의 채무 부담을 4.3조원 경감

④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고령층의 휴면재산 찾기 지원 등 금융재산을 보호

* 장애인용 도움벨, 고령층 전용 큰 글씨 어플리케이션, 전용상담 창구 등

<직원 도움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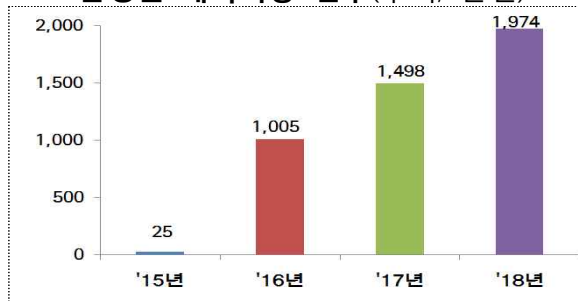


< 고령층 휴면재산 찾기 사업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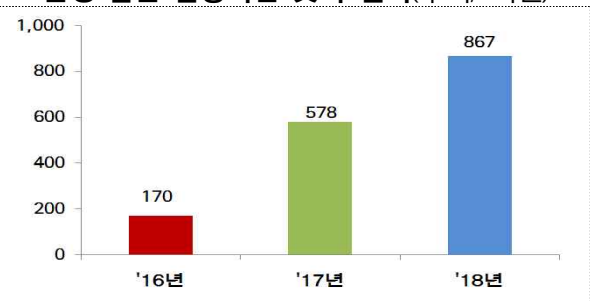


- 계좌이동 서비스, 숨은 금융자산(예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등) 찾기 등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를 지속 제공 중

<은행권 계좌이동 건수(누적, 만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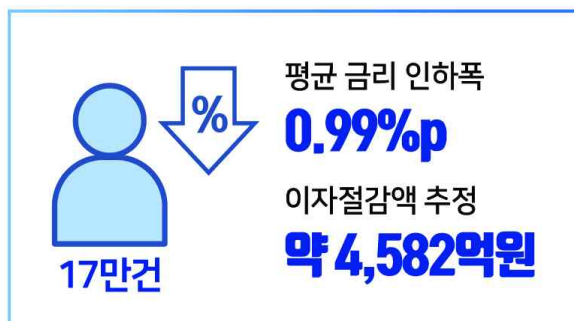


<은행 숨은 금융자산 찾기 실적(누적, 억원)>



- 법령 개정(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으로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18.6월~)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

<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현황(18년) >



< 신용평가체계 개선의 효과 >



5. 대내외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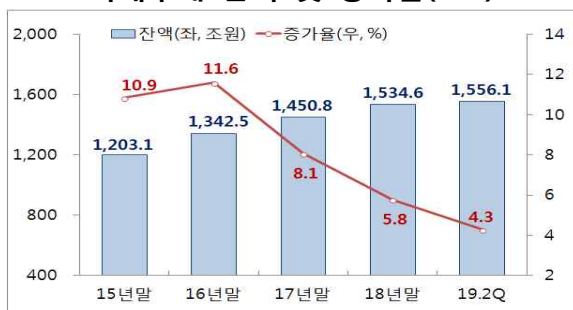
[그간 추진정책]

- ①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 ②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가상통화 거래 안정화
- ③ 현안기업 구조조정에 적의 대응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19년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4.3%('04년 3분기(4.1%) 이후 최저)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금리구조의 질적 개선도 눈에 띄게 나타나는 모습
 - * 안심전환대출 등의 효과로 지난 2년간 목표치에 미달하였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19년 고정금리 48%, 분할상환 55%)를 3년만에 달성 예상

< 가계부채 잔액 및 증가율(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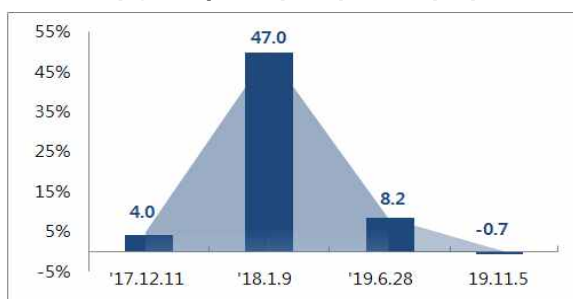


<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 >



- 거래자 본인확인 등을 통해 과열된 가상통화 거래 안정화
 -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 ('18.1월) 46.7% → ('19.11.5일) △0.7%
- 현안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직영·협력업체 고용 안정

< 가상통화 김치프리미엄 추이 >



< 구조조정 지원의 효과 >



6.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정책]

- ① 회계개혁(외부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②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 ③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올빼미 공시 근절 추진

① 회계개혁을 통한 기업의 회계 투명성·신뢰도가 제고

< 회계개혁에 대한 외신 등의 긍정적 평가 >

- 한국의 엄격해진 회계감사로 인한 비적정 감사의견의 증가는 투자자들에게 기업부실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조기경보 역할 수행 (Bloomberg, 4.19일)
- 한국의 회계개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코스닥 상장 기업에 기회로 작용 (국제회계사연맹 부회장, 1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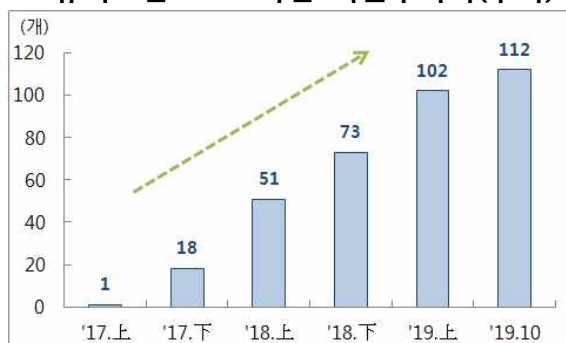
②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투자자가 112개로 증가

* 코드 가입 기관 수 : '17말 18개사 → '18년말 73개사 → '19.10월말 11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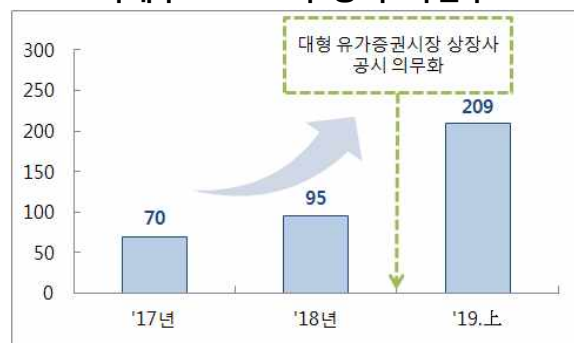
③ 금년 중 200개 이상 기업(코스피 기준)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 시장감시·평가 등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립관행 확산

*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수 : '17년 70개사 → '18년 95개사 → '19년상 209개사

<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투자자(누적) >



<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수 >



④ '올빼미 공시' 강력 대응 → 부적절한 관행 대폭 감소

* 금년 연휴 직전일 장종료후 공시건수 : <대책발표前> (구정) 135건 (3.1절) 289건
<대책발표後> (어린이날) 45건 (추석) 25건

Ⅱ. 향후 정책방향

◇ 우리 금융산업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가야할 길이 먼 만큼,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과를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혁신의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 산업육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
-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

성장의 디딤돌로서 포용금융의 힘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 햇살론¹⁷ 공급규모 확대, 햇살론^{youth} 출시 등 서민·청년층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
-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을 개선(소비자신용법 제정)하고,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
- DLF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 저금리 기조 하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

① 핀테크 활성화, 진입규제 완화 등 금융권 경쟁과 혁신 가속화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사례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18.8월)에 참석한 고객들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고, 인터넷은행과 협력한 핀테크기업은 협력 경험이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사례1 : 고객 사례>

오OO씨는 사업 실패 후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서도 비대면심사로 필요한 자금을 제2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7%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엄OO씨는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사례2 : 핀테크 기업 협업 사례>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은 "케이뱅크와 은행 IT 시스템 구축에 협업한 뒤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성장하고 직원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 은행의 수산·결제 시스템 구축 수주를 포함해 필리핀과 일본 등 해외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수혜 사례 >

40대 직장인 P씨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은행을 하나로 통일할까하는 생각도 했지만 은행별 혜택이 달라 계좌를 분산 중이다.

최근 오픈뱅킹 시범실시가 시작되면서 P씨와 같이 여러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다. 하나의 은행앱을 통해 여러 은행에 분산된 계좌 잔고를 한번에 확인하고 입·출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흩어진 나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 P씨는 더욱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우리나라 핀테크 관련 이코노미스트 기사 >

이코노미스트紙 "금융을 재미있게 만드는 한국"

과거 한국에서 금융서비스의 선택 기준은 인맥 의존도가 높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은 낮은 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5년부터 핀테크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핀테크 분야에서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등이 등장하였으며 금융생활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가 변화하였다. 한국인들은 재미 있는 금융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금융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 할 것인지 주목이 필요하다

< 혁신금융서비스 수혜 사례 >

블로그를 통해 고객이 검색한 항공권 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 K씨는 빗발치는 고객들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받기가 곤란**하였다.

최근 000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사업자 카드결제서비스를 출시**하면서 K씨는 '항공권 검색의뢰 서비스'를 **정식으로 유료화**하여 컨설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② 모험자본 공급 강화,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 적자기업이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사례 >

온라인 SOHO 쇼핑몰 사업자에게 쇼핑몰 운영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페24는 지속적인 투자로 적자상태였으나, 새롭게 도입된 이익미실현 상장요건 1호 기업으로 '18.2월 코스닥에 상장, 대규모 공모자금(513억원)을 조달**하였다.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온라인 커머스 관련 투자 및 신규사업을 확대한 결과, **연 매출이 2배 이상('16년 1,015억→'18년 2,209억)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16년 △25억→'18년 156억)**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 독창적 사업모델을 인정받아 상장한 사례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언어 빅데이터를 구축,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플리토는 독창적 사업모델의 성장성을 인정받아 사업모델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19.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383억원의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미국 등 해외지사 설립,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등 **사업 확장을 위하여 활용** 중이며, 최근(11.4) **미국 소재 IT기업에 10억원 상당의 언어데이터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 성장지원펀드 지원 사례 >

다수의 혁신성장 간담회('17.10월, '18.10월 등)에서 기업인들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성장자금 공급이 필수적"**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 사례1 >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기업 A사는 혁신모험펀드를 통해 400억원을 투자받았고, 이와 연계하여 **산업은행을 통해 5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플랫폼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온라인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사례2 >

레미콘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B사는 혁신모험펀드를 통해 300억원을 투자받아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바탕으로 **他레미콘 업체 등에 대한 M&A**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산금융 활용 사례 >

수산물(활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A는 뛰어난 영업력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임차사업장에 본인 소유의 동산(냉장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18년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고기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산물의 신선 보관 등 냉장장치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

'18.5월에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기업의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냉장장치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적기에 지원받아 냉장장치를 추가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수혜 사례 >

과학기술원 연구원 출신인 A씨는 대학원생 시절부터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인 '라이다 센서'* 개발을 위해 스피노프 (Spin-off) 창업하였으나 제품개발 및 사업화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빛의 이동시간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18.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실패의 부담없이 사업화 및 제품 생산자금 28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에 선보인 제품이 호평을 받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A씨는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도전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③ 서민 ·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사례

< 취약계층 특별채무조정 지원 사례 >

질병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 중인 기초수급자 A씨는 신용카드 연체채무 8백만원(원금 6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접하고 신복위를 방문하였다.

신복위 상담 과정에서 '19.7월 신설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채무원금도 6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90% 감면받아 6년간 매월 8,000원씩 분납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

A씨는 위 변제조건대로 3년 간 성실변제하면 잔여 채무도 추가로 면책받게 될 예정이다. 이 경우 최대 95%까지 원금감면 수혜를 입게 된다.

< 햇살론¹⁷ 사례 >

1년이상 쿼서비스 배송기사로 재직 중인 김씨(40대)는 자녀의 대학 입학 등록금이 부족하여 저축은행 등 신용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급여 현금수령자의 경우는 소득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대부업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는 20% 이상으로 너무 높아 고민하던 중 햇살론17을 알게 되었고,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대체서류를 구비해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받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 결과, 햇살론17 보증승인이 완료되었고 시중 은행에서 700만원을 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자녀 대학 입학 등록금을 마련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대출 수혜 사례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건물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30백만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여 인근의 B은행을 방문하였다. B은행에서는 A씨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뿐인 자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신용대출로 받을 경우에는 한도가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금리도 7% 이상 나올 것이라 하였다.

고민 중이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초저금리 특별대출이라는 상품을 알게 되었고, 대출 가능한 최저 신용등급(B등급)에 해당되었음에도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1%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사업 정리까지 고민했던 A씨는 보증금 납부 후, 금융비용 부담 없이 열심히 자영업에 영위하고 있다.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수혜 사례 >

곽씨(50대)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건설일용직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중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를 감액조정 받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정된 월납금액을 꼬박꼬박 납부해왔으나 2017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다니던 일용직 일을 쉬게 되었고, 약 4개월 간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다.

때마침 2017년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채무감면 신청대상에 해당됨을 알게 되어 신청을 통해 그동안 밀린 연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액 즉시 면제를 받아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다.

4 금융시장 안정

< 가계부채 관리 관련 IMF 미션단장 발언 >

‘19년 IMF 연례협의 후 IMF 미션단장 1문1답 중 (‘19.3월)’

가계부채는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다.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사례 >

중소기업 A는 99년에 설립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LCD 프리즘 시트*를 양산하여 국내외 기업에 납품하는 소재·부품기업이다.

* LCD의 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름으로, 주로 태블릿 PC, 노트북 모니터 등에 사용

‘19.8월 일본 수출규제가 본격화되자,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을 수입중 (연간 95억원)이던 A사는 매출의 30%(약 240억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품질 검사, 공사 설비 변경 등으로 단기간 내 수입처 전환도 쉽지 않아 1년분 재고를 우선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A사는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 운영자금 50억원 전액을 저리로 지원(‘19.9월)받았고,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고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계부채 관리 관련 AMRO 평가 >

‘19년 AMRO 연례협의 평가내용 중 (‘19.9월)’

“높은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 및 취약성은 일련의 조치가 시행된 이후 대체로 억제되고 있다.(risks and vulnerability stemming from high household debt and rising house prices, are largely contained after a series of measures became effective.)”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제의 전면 시행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The full implementation of ceiling on the debt-service to income ratio (DSR) is expected to strengthen households’ financial soundness and safeguard financial stability)”